

## 번역사를 바라보는 한 관점: 앙리 메쇼닉(H. Meschonnic)의 경우\*

조재룡  
(고려대)

번역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함은 모든 일련의 물음들에 대답하고자 시도함이다.(Van Hoof, 1995 7)

문학의 역사는 번역의 역사 없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 유럽에서 이 역사는 일련의 지움들로 각인되어 있다.(Meschonnic, 1999 32)

### 1. 서론

‘운문’(vers)과의 이분법에서 포착되었을 뿐인 ‘산문’ 개념, 추출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일변한 “번역의 진리” 개념, 윤리의 문제와 고스란히 맞물려 있는 “번역정신”(psyché traductif)이나 “긍정비평”(critique positive) 개념 등, 여분처럼 기억의 양피지 위에 고스란히 남겨지는 몇 가지 이론적인 문제점<sup>1)</sup>에도 불구하고

---

\* 이 글은 2008년 한국번역비평학회 9월 월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2008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고 베르만이 번역 비평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번역을 ‘비평’의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사유하고 나아가 번역비평 정립에 필요한 단계들을 차분히 정초했다고 한다면, 메쇼닉은 비평에 결부시키기보다는 “텍스트의 가치와 텍스트의 의미작용에 관한 이론을 의미하는 시학 속에 텍스트의 번역 이론이 포괄된다”(메쇼닉, 1973 305-306)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시학’안에다 번역행위 전반이 지니는 가치와 특수성을 ‘위치시키려’ 노력한다. “리듬 비평”(메쇼닉 1983)과 “번역 시학”(메쇼닉 1999) 사이의 틈이 열리는 곳도 바로 여기이다. 미약한 것이긴 하지만, 이 틈을 통해 살며시 엿보이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이고 인식론적인 투쟁 과정 전반을 밝히는 데 할애된 전자의 역척스러움, 그리고 이론적 규명의 대상임에도 번역에서 이론이라는 것이 오로지 번역의 실천을 통해서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경험과 함께 도모해야만 하는 추론의 과정이라 여기고 접근한 독창적인 해석, 이 양자 사이에 놓인 어떤 긴장과 함의들이다. 물론 시학의 영역에다가 번역의 문제들을 폭넓게 제시하려 메쇼닉이 시도한 지난한 노력들이나 그의 비평과 시학 사이에 존재하는 이 긴장과 함의들이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번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추려볼 때, 거기에 서양 번역의 역사를 가름하고자 메쇼닉이 제시한 몇 가지 주요 개념들을 포개어 함께 살펴볼 때 잠시 몸을 내밀 뿐이다.

본 연구는 고대에서 포스트 르네상스 시대까지를 중심으로 하여<sup>2)</sup> 메쇼닉에 있어서 번역의 역사와 개념, 개념과 역사, 이 양자가 맺고 있는 관계를 상관적

1) 여기에다가 리쾨르(P. Ricoeur)나 야우스(H. R. Jauss)의 이론적 입장에 기저한다고 말하는 베르만 자신의 “번역계획”이 진정 이 학자들의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번역계에 만연하는 ‘의미 포착’의 강박관념이 “랑그의 우월성”(1999 34)에 집착하여 번역과정 전반에 접근한 몰이해의 결과라고 파악한 베르만이 “모사도 재생산도 아닌, 시니피앙들의 놀이”(ibid., 14)에 자신의 “문자-의-번역”(traduction-de-la-lettre)이 결부되어 있다고 정의할 때, 우리는 이 개념이 ‘단어 대 단어’ 번역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익히 짐작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의미-형태’(forme-sens)를 전제한 “리듬의 번역”(traduction de la rythmique)과 연관 지어 사유하지도 않는 경향을 보인다.

2) 메쇼닉이 가능한 18세기~20세기의 번역론의 관건들을 한편의 논문에 망라할 수 없음을 자명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시대 국한은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후속 연구를 약속하는 윤리적인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으로 살펴보는데 할애 될 것이다.

## 2. 번역사의 재구성을 위하여

『바벨 이후(*Après Babel*)』의 제 4장에서 스타이너가 키케로 이래로 발전해 온 번역 담론의 역사를 대략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을 때<sup>3)</sup>, 이 구분의 모호성과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매 시기, 주어진 매번의 역사적 공간에서 번역 실천이라 함은 문학과 언어들, 상호 문화적이고 상호 언어적인 다양한 교환들의 실천과 맞물려 있다”(1984 12-13)고 일침을 가한 사람은 바로 베르만이였다. 베르만이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되었건, 번역이 시대 고유의 습속과 역사성을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특정 시대의 분위기, 특히 문학이나 언어가 맺어온 다단하고도 복잡한 관계를 헤아려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번역의 역사를 일별해 낼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얼추 보아 메쇼닉이 번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문학을 벗어나 ‘누구나’ 번역을 이야기하고 번역에 대한 입장들을 앞 다투어 드러내기를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오늘날<sup>4)</sup>, 번역 이론에 관한 논의와 번역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문화와 언어 현상 전반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풍성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번역을 이야기할 것이며, 어떤 시선을 번역에 드리워야하는지, 즉 번역에 접근하는 인

3) G. Steiner, 1978 224-252. 스타이너는 번역사를 일별하면서 그 1단계를 키케로에서 출발하여 율더린이 소포클레스 번역에 관해 덧붙인 1804년까지로, 제 2단계를 1792년 알렉산더 프래저 테일러와 1813년 슐라이어마허에서 1946년 발레리 라르보의 저서가 출간되기까지 해석학과 번역이론을 아우르는 시대까지로, 이후 1960년까지를 자동번역이론 및 구조주의 언어학이 번역학에서 응용되던 제 3단계로, 196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를 제 4단계로 구분하면서 각 시기를 대표하는 이론가, 문학가, 시인, 철학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4) 이 ‘누구나’에 포함되는 부류는 특히 철학자들이다. 데리다와 리퀘르 같은 학자들의 번역에 대한 제안이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 이들의 제안을 성급히 인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리퀘르 자신의 말마따나 이들의 언어관을 “언어적 환대”(l'hospitalité langagière) (Ricoeur, 2004 19)를 통해 수용하는 데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었다. 이들의 논의를 앞 다투어 ‘환대’하려는 태도들은 해석학의 논리를 살찌우면서 문학번역의 관건 전반을 ‘이해하기’의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식론적 태도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이 시대적 풍부함에 궤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히 언급한다면, 그것은 바로 메쇼닉이 강조하는(해은) 몹시도 진부해 보이는 어떤 전언, 즉 역사적·이론적으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형성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해온 문학과 번역의 역사적 상관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적어도 국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번역사의 관건들과 베르만이 언급했던 “현대 번역이론의 임무인 번역사[를] 구축”(1984 12)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놓여 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언급이 평범함을 넘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까닭은 번역이 문학과 동떨어져 언급될 수 없다는, 매우 근본적인 입장과 마주하는 바로 순간이며, 또 우리가 이런 견해를 수용하려는 순간, 상식처럼 여겨져 오던 사실들이 상식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통념들을 토대로 한 기존의 제안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역사 속에서 문학이 하나의 형태를 고안하는(하려는) 매 순간, 알게 모르게 번역이 개입되어 있으며, 번역이 하나의 새로운 형태를 고안하는(하려는) 매 순간, 마찬가지로 문학이 자리한다는 인식을 번역사라는 미지의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번역사와 번역 자체를 지배해오던 통념들이 하나씩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sup>5)</sup> 바로 이 때 번역사는 단순히 번역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일별해낸 결과물들의 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과 문학의 상관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독창적인 공간이자, 번역과 문학, 문학과 번역이 서로의 변화에 관여해온 일련의 ‘사건들’을 정치하게 포착하고 추출해야만 온전히 조망할 수 있는 힘겨운 연구 대상이자, 연구과정 전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번역에서 이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유일한 곳도 바로 여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정을 드러내는 인식론적 전환의 순간들로 꼽을

5) 한국의 경우, 몇몇 국문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설시조나 잡가(雜歌)와의 연속 선상에서 그 연유를 찾기보다 김안서를 중심으로 한 상징주의 번역을 통해 촉발되었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해야 할 자유시나 한용운에서 기미를 보이기는 했다지만 일본어 중역이나 번역을 경험했던 주요한에서 비롯되었을 산문시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거슬러 올라가, 오히려 1908년 「소년」지를 창간하면서 신체시의 모형을 일본에서 도입하여 한국 근대시의 문을 연 최남선의 시도 자체가 이미 번역이라는 하나의 과정과 문학의 변모, 이 양자의 불가분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수 있는 번역사의 지점들을 메쇼닉은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 것일까?

### 2-1. 그리스와 로마: 키케로(Cicéron)와 성 히에로무스(Saint Jérôme)

아무리 객관적인 눈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고 주시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 두 눈이 드리우고 있는 예각조차 오로지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을 뿐인 것처럼, 번역사 연구에 천착하는 연구자들에게 사실상 객관적인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학사의 ‘사(史)’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 흔히 믿곤 하는 객관성이 한낱 신화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기술일 것이라 신봉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확정적인 사실처럼 가르치곤 하는 번역사의 어떤 지점에는 반드시 이 지점을 비추는 거울, 즉 반사되고 굴절된 ‘입장들’이 뒤엉켜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서양 번역사 전반에서 ‘체계를 갖춘 최초의 이론가’로 예외 없이 키케로를 언급해 온 것도 자명한 사실에 대한 검증과 확신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굴절된 거울, 즉 어떤 입장을 나름의 각도로 비추고 있는 반사적인 관습의 결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번역가가 아니라 연설가에게 보내는 충고였다는 해석이나 ‘단어 대 단어’ 번역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의미의 전달’을 우선적으로 권고했다며 갈등을 빚어내곤 하는 기록들은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의역의 역사’를 노정하는 데 필요한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이다. 키케로의 글에서 번역에 관하여 언급되었다고 종종 인용되어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단어에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내가 간직했던 것은 바로 단어들 전반에서 표현들의 어조와 가치였다.(키케로 1921 111)

위 구절을 인용하면서 발라르(M. Ballard)가 이끌어낸 두 가지 해석은 ‘의역의 역사’를 일갈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키케로에게서 왜 유독 ‘의미 전달’의 의지가 강조되었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왜 이들이 번역연구를 ‘기호’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의 효율적인 진행과정으로 파악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키케로가 남긴 위 구절에서 발라르가 ‘단어 대 단어’ 번역, 즉 우

리가 흔히 직역이라고 일컫곤 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의지를 포착하게 되는 것은 예컨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밑줄 - 인용자)에 토대를 둔 번역을 정당화하기 위한”(2007 40) 키케로의 의지를 언급할 때이다.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로부터 어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해석은 “표현의 어조와 가치”를 번역의 특성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웅변가의 임무로 환원하면서 완성되기 때문에 아무런 저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아니다. 히에로무스의 번역론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나타나는 어떤 동일한 잣대, 즉 ‘의역의 역사’를 구성하기 위한 일보는 이렇게 언어에 대한 일관되고도 제어된 재현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스어를 번역할 때 - 단어들의 순서가 정말로 신비로운 성서들을 제외하고 -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한 단어로 한 단어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로 하나의 사유를 옮겨오는 것이다.(성 히에로무스 1963 59)

위 구절에 대한 발라르의 해석 역시 이중적이다. 발라르는 히에로무스가 신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스러운 글에 관련되어서는 직역을, 나머지 텍스트에 대해서는 의역을 권고했다며 논의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히에로무스가 “한 단어로 한 단어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유로 하나의 사유로 옮겨오는”(밑줄 - 인용자)번역을 주장한 것을 히에로무스 자신의 고백에 기대어 키케로와의 연장선상에서 유독 ‘의미중심 번역’에 대한 예찬과 답습으로 여길 뿐이다.

히에로무스가 여기서 그리스어를 번역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즉각 지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 하나는 키케로식에 따른, 의미에서 의미로의 번역이고, 나머지 하나는 성스러운 글들에 관계된 (암시적으로는) 문자그대로의 번역이다.(발라르 2007 46, 밑줄-인용자)

“단어들 전반에서 표현들의 어조와 가치” = “의미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거쳐, “하나의 사유로 하나의 사유를 옮겨오는 번역” = “의미에서 의미로의 번역”이라는 등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울은 바로 의역의 역사를 세우기 위한 어떤 신념이자, 에티엔 돌레(E. Dolet)를 위시로 한 르네상스 시대 번역가들의

번역에 관한 사유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출해내곤 하는 어떤 함의이다. 이러한 발라르의 행보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를 충실성의 주요 잣대로 삼아 투명유리와 채색유리에 비유하며 직역과 의역의 구분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감행하였던 무냉이(G. Mounin)이나 “자구(字句, lettre)”나 “정신”(esprit)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직역과 의역을 번역이론가나 번역가를 망라하고 번역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응당 행하기 마련인’ 선택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일련의 부당한 선별작업을 감행했던 라드미랄(J.-R. Ladmiral)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지지로 이어지는 것 또한 우연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념의 반대편을 비추고 있는 또 다른 거울은 바로 의역과의 경계 확정을 통해 그려보려 한 직역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메쇼닉과 페르만, 아니 벤야민까지도 직역론자로 편입되고 마는 과정 전반을 갈무리하는 작업은 바로 이렇게 완성된다.<sup>7)</sup> 한편 그리스와 로마의 번역에 관한 사유를 정리하면서, 메쇼닉은 의미 중심 번역이론의 시조처럼 인식된 키케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긴다.

내가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은 불편하고도 모순적이지만, 이 입장은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언어활동에서 힘의 의미이다. 시에서의 미지에 관한. 반대로 해석학은 알려진 것, 의미가 아니라, 기호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힘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취하고 또 취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으나 문화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키

- 
- 6) 무냉이 충실성의 기준을 “출발어의 특성”, “원문에서의 시대적 취향”, “원문과의 문화적 거리”(G. Mounin 189)를 통해 고려할 것을 충고하면서 충실성 자체의 기준을 ‘자구’와 ‘정신’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로 전환했다는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이 기준이 직역과 의역의 구분을 고착키는 데 덜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 7) 예를 들어, 1994년 개정판에서조차 라드미랄은 1981년 자신이 주장했던 이분법적 분류를 고수한다 : “두 가지 근본적인 번역 행위의 방식이 있다고 말해야겠다 : 내가 “출발론자들”이라 부르는 이들은 언어의 시니피앙을 중요하게 여기며, 출발 언어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반면 내가 “도착론자들”이라 부르는 이들은 시니피앙, 심지어 시니피앙에도 중요성을 두지 않으며, 의미에 중요성을 두고, 랑그가 아니라 파롤 혹은 디스쿠르에 중요성을 둔다. [...] “출발론자들”에 나는 발터 벤야민, 앙리 메쇼닉 혹은 앙투완 베르만을, “도착론자들”에 조르주 무냉, 이퐁 이트킨트,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시킬 것이다.”, J.-R. Ladmiral 15.

케로의 두 단어 *vis verbi, vis verborum*을 둘러싸고 벌어진 번역상의 작은 사고이다. 만약 이 단어들이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아니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볼 때, 이 구절은 “단어의 힘” 혹은 “단어들의 힘”으로 번역되어야만 마땅하다. 그런데도 뷔데의 모든 판본은 키케로의 이 두 단어를 “단어의 의미”, “단어들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심지어 최고의 라틴어 사전인 프루이트 출판사의 라틴어 사전 불어판에서도 “힘”을 뜻하는 단어 “*vis*”를 “단어의 의미”, “단어들의 의미”로 번역하였다.(2008 49-50)

흔히 의역론이라고 불리는 ‘의미 중심 번역론’을 비추고 있는 거울의 허상을 지적하면서 메쇼닉이 키케로의 “단어들의 힘”에 대해 주목할 것을 강조한 까닭은 번역사에서 주요 학자들이 남겨 놓은 번역에 관한 소중한 사유들을 의미와 단어, 의미와 형태 등의 이분법과 결부시켜 해석을 감행해온 일련의 지배적 경향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들의 폐단들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대다수의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키케로의 ‘직관’ 속에서 메쇼닉이 들여다본 것은 오히려 “번역해야 할 것은 단어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어들이 생성해내는 것”(1999 55), 즉 단어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를 헤아릴 때야 비로소 드러나는 어떤 “힘”을 번역에서 중시해야 한다는 사유일 것이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메쇼닉이 지적한 “단어들이 말하는 것”이란 주로 의역이라는 번역 방식을 주장한 학자들이 기대고 있는 최후의 심급인 ‘발화체’(*énoncé*)의 수준에서 번역을 파악하는 관점을, “단어들이 생성해내는 것”이라는 지적 속에는 ‘발화행위’(*énonciation*)의 차원에 번역을 위치시키며 “단어들의 힘”에 주목하는, 시학 차원의 번역을 지칭하는 함의가 담겨져 있다.

## 2-2. ‘모사’의 패러독스: 중세의 번역론

한편 메쇼닉은 프랑스어가 대중어로 널리 정착되는데 기여한 것이 바로 중세의 번역이었다고 언급하면서 그 과정을 주도했던 번역 방법인 “모사”(模寫, 베끼기, *calque*)가 지니고 있던 패러독스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어휘에 의해, 보다 드물게는 통사에 의해서, 모사는 동일성 안으로 이타성을 들어오게 하였다. 모사는 타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살찌웠을 뿐, 자신의 언어 속으로 들어온 새로운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준비하지 않았다. 어떤 관계에 대한 부정이기조차 한 모사.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이런 운반은 그리스어를 변형시켰다(히브리어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에서부터, 그리고 여전히 신약성서에서 보다 더). 라틴어는 성히에로무스부터. 프랑스어는 라틴어에 의해서. 16세기에 이르러 지배적인 실천으로서의 자취를 감추게 된 모사(클로소프스키의 『에네이드』나 슈라키에 의해 다시 취해진 에드몽 플레그의 성서 번역들 같은 개인적인 재출현들이 남아 있는)는 최초의 혼종을 실현한 셈이다.(1999 39)

위 언급은 번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분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낳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앙드레 슈라키의 성서 번역<sup>8)</sup>이나 클로소프스키의 번역에 대한 메쇼닉의 비판 속에는 베르만과의 견해<sup>9)</sup>와 충돌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지점이 형성되어 있는 한편, 번역 행위 전반이 기여한 바(즉, 번역의 역사적 효과)와 번역 행위의 특성(즉, 번역의 특수성과 가치), 이 양자 사이의 차이를 메쇼닉이 어떻게 이타성의 수용 여부와 모사의 정의를 통해 포착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다. 특히 여기서 모사가 타자의 특성을 동일성에 의해서 병합(annexion)해버리는 수단이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두 “언어-문화”(langue-culture) 사이의 이행을 조건으로 성립하는 ‘탈중심’<sup>10)</sup>(decentration)을 통한 번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그 어떤 번역행위도 자신의 ‘번역의 시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포괄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8) 슈라키의 성서 번역에 대해 메쇼닉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 “이 번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히브리어를 배우는 수밖에 없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듯한 번역.” H. Meschonnic, 1978 235.

9) “클로소프스키의 작업은 ‘직역성’과 ‘모사’를 엄밀하게 구분하게 해준다.” A. Berman 1999 141.

10) “탈중심은 두 문화-언어 내에서 두 텍스트 사이의 텍스트적 관계로서 그 관계는 랑그의 언어 구조 내에까지 이른다. 이때 언어 구조는 텍스트의 체계 안에서의 가치이다. 병합이란 문화, 시대, 언어적 구조의 차이를 없애서 마치 출발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도착언어로 쓰여진 것처럼 그 관계를 지우는 것이며, 자연스럽다는 환상, 마치 그랬을 것, 문화, 시대, 언어적 구조의 차이들을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H. Meschonnic 1973 308.

당시 타문화와의 혼종을 실행하는 주체였음에도 타문화의 일방적인 편입을 주도한 모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중세의 번역(직역과 혼동되기 쉬운)은 ‘낮춤’을 존중한 번역이라기보다는 낮선 것을 통째로 자국화(domestication), 혹은 ‘자기화’(appropriation)하는 번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번역은 메쇼닉이 시학과 번역의 연속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번역의 양상을 ‘소개차원의 번역’,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은 번역’, ‘텍스트를 고려한 번역’으로 구분해본 세 가지 카테고리 중, ‘원본에 대한 충실성을 고집하면서 원본을 숭배하는, 소위 직역의 신화를 조장’<sup>11)</sup>하는 두 번째에 카테고리에 속하는 번역에 해당된다. 가독성(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론적 접근이 불가능하기조차 한 개념이기도 한)을 강조하며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11) “소개차원의 번역은 “기존에 받아들여진 사유의 합”을 의미하는 “한 시대에 가능한 것들의 목록들 의해서”(『시학을 위하여 2』, 231쪽) 도착어의 문화적인 점유를 과시하는 번역이며, 이러한 번역은 시간이 지나면 곧 낡은 것으로 치부될 뿐이다. 도착어 문화로의 적절한 ‘수용’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정당성의 알리바이로 삼는 소개차원의 번역은 한마디로 말해 도착어 독자들의 교양을 살찌울 목적으로 주해나 해설을 덧붙인 ‘의역’을 의미한다. 효과적이고 훌륭하게 ‘의미’(sens)를 전달해야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타문화 고유의 요소들을 자국 문화에다 통합시키고 마는 이러한 번역은 언어와 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면 시나브로 사라지고 말, 시대의 ‘여분’과도 같은 소모적인 생산물일 뿐이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분류된,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은 번역’은 정보의 운반(transport)에만 만족하는 번역으로서, 문법 차원에서 행해지는 기계적인 직역이나 모사(模寫 calque)와 같이, 전적으로 출발어로 향하는 번역을 의미한다. 이 번역 역시 문헌학적 가치를 제외한다면, 시대가 바뀌면 노후하고 말 번역일 뿐이며, 그럼에도, 원본에 대한 충실성(fidélité)을 고집하면서 원본을 숭배하는, 소위 직역의 신화를 조장한다.

한편, 텍스트를 고려한 번역을 메쇼닉은 관계(rapport) 혹은 탈중심(decembrement)을 겨냥한 번역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 출발어 문화 전반과 도착어 문화 전반 사이에 본격적인 상호침투가 번역을 통해 가능해진다. [...] 메쇼닉에 따르면, 번역에서 도착어와 출발어의 사이의 ‘텍스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는 탈중심화 개념은, 심지어 도착어의 구조를 변화시킬 힘마저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출발어 텍스트가 지닌 텍스트로서의 가치, 즉 문학적인 것이나 시적인 것으로 여길만한 지점들을 포착해낸 번역가가 이 가치를 도착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착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언어의 영역이 개척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조재룡 2008 41-42.

로 고려해야한다는 ‘의미포착의 강박관념’에 매몰된 번역만큼이나, 텍스트의 형태적인 측면을 옹기는 데 급급한 모사 역시 타자를 부정하는데 일조해왔다는 것이며, 한편 역사적 지점들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간 소위 ‘직역’이라 불려온 번역의 방식을 가늠해온 기준이나 메쇼닉의 번역 방식과 번역에 관한 사고 전반을 지칭해왔던 ‘직역주의자’라는 떼떠름한 지적 속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의 진원지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 2-3. 문장에서 리듬으로: 15-16세기 번역

메쇼닉의 번역사 인식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체계를 갖춘 번역이론의 출발로 여겨지는 에티엔 돌레의 다섯 가지 원칙과 번역 불가능론(특히 ‘시’)의 시조로 여겨지며, 번역에서의 ‘친화력’의 문제를 들추어낸 뒤 벨레(Du Bellay)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이다. 이 두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이 남긴 번역에 대한 해석은 메쇼닉의 번역시학이 어떤 개념들을 중심으로 번역사를 궁그리며 횡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와 맞물려 번역사의 어떤 지점들에 천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정초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메쇼닉이 15-16세기의 번역가들의 사유에서 “문장에서 리듬”(1999 40)으로 ‘번역의 단위’가 이전되는 획기적인 전환을 목도하는 것은 바로 돌레나 뒤 벨레를 위시로 한, 소위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의 번역에 관한 사유에서이다. 물론 의역 중심주의자들의 해석과는 상이한 해석은 여기에도 자리한다.

첫 번째 원칙, “소리 & 작가의 직업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한 것은 랑그에 대한 텍스트의 우월성, 문헌학에 대한 시학의 우월성을 제기한다. 두 언어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라는 두 번째 원칙은 항상 자명한 것은 아니며, 그 시대에는 간접적인 번역과 대립되었다. “단어 대 단어”에 반대되어 “가치 판단”과 “의도”의 선택에 의해야 한다는 세 번째 원칙은 디스쿠르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단어는 랑그에서 비롯된다. “라틴어에 지나치게 가까운 단어들과 신조어, 이렇게 시대의 양 극단을 피하면서, 모사와 대립되는 “공통된 언어행위를 따르는데” 놓여있는 네 번째 원칙,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이미 번역시학의 윤리이다.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다섯 번째 원칙은 다른 말로는 “언어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리듬과 프로조디를 뜻하는 “웅변적 숫자들의 고찰”이다. 번역시학의 핵심이 여

기에 이미 묘사되어 있다.(메쇼닉, 1999 41)

위의 지적에서 먼저 언급할 사항은 메쇼닉이 돌레의 네 번째 원칙 속에 중세의 번역방식을 대표하는 모사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다고 여겼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네 번째 원칙을 메쇼닉은 모사가 지닌 위험성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돌레가 프랑스어와 라틴어 양 극단을 피해 번역에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경고함으로써 병합을 지양하는 윤리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메쇼닉의 해석은 공히 기존의 수용들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 그 중, “디스쿠르의 속성”에 해당된다고 한 세 번째 원칙과 포괄적으로 리듬의 문제를 끌어내었다고 한 다섯 번째 원칙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중요한 지적으로 꼽히는 다섯 번째 원칙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키케로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미어호프[Meerhoff], 1986 71) 이 세 번째 원칙을 보기로 하자. 메쇼닉이 디스쿠르에 관한 사유를 목도한 돌레의 세 번째 원칙은 아래 제시된 해석과도 일면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세 번째 관점은 키케로의 『연설가가 선택할 최고의 연설 방식에 대하여』에서 비롯된 [...] “단어 대 단어”가 아니라, 원본의 말들의 “속성과 힘”을 존중하는 것이다.(쇼마라[Chomarat] 1993 91)

그렇다면 키케로나 돌레에게서 목도되며, 그 중요성이 재차 강조된 바 있는 “원본의 말들”이 맺고 있는 “힘”을 존중해야한다는 사유를 번역에서 반영하기 위해, 또 돌레의 세 번째 원칙을 “디스쿠르의 속성”에 대한 암시적인 제안으로 여기기까지 메쇼닉 자신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개념들을 노정하고 있는 걸까? 만약 메쇼닉이 번역을 문법에 토대를 둔 랑그 차원을 벗어나 디스쿠르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특수한 경험으로 간주한다고 한다면, 이는 메쇼닉이 문법에 토대를 둔 랑그와는 달리, “랑그의 행위”<sup>12)</sup>와 언어요소들의 조직과 유대를 전제하는 디스쿠르 개념에 번역의 제반 문제가 놓이게 될 때 실상 ‘의

12) “랑그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문장들로 활성화된 디스쿠르 속이다.”, E. Benveniste, 1966 131.

미의 불변 요소'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2002년 출간된 소쉬르의 미발표 원고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유, 즉 랑그보다는 '랑그의 행위', 즉 랑그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유대성과 이 유대성을 가능하게 해줄 '힘'을 전제하는 디스쿠르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sup>13)</sup>이라고 할 수 있다. 메쇼닉이 해묵은 번역사를 뒤적거리며 발견해낸 것은 바로 '랑그에 행위를 부여하는 힘'—돌레나 뒤 벨레의 제안에서 이미 엿보이기 시작한—을 번역에서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일련의 직관들이다.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을 거부하면서 "가치 판단"과 "의도"의 선택에 의해 번역 전반을 관장하는 고리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던 돌레의 지적은 번역대상을 '발화체'로 여기고 문법에 의거하여 '의미' 추출을 감행한다는 측면보다는, '발화행위'로 번역 행위 전반을 전제하고 이를 통해 말들의 '가치'(소쉬르적인 의미에서)를 변별해낼 것을 주문하는 행위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 2-4. 리듬(rythme)과 프로조디(prosodie)에 대한 사유

에티엔 돌레로 다시 돌아와 그의 다섯 번째 원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발레리 위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돌레가 번역에서 문학적 배려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1986 56)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말해 그것은 라틴어 육각시를 산문의 형식으로—즉, 정형을 배제하여—번역했 으면서도, 하필 그 원칙에 있어서 "웅변적 숫자"(le nombre oratoire)를 존중해야 한다고 돌레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얼핏 보아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실(산문 형식을 취했으면서도 규칙적인 숫자를 존중해야한다?)이 모순이 아닌 것은 이 개념이 규칙성이나 정형율, 또는 숫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새로웠을, 리듬 개념과 고스란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념 위에 포개진 연구자들의 해석은 부유한다. 더구나 이 개념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을 번역의 역사적 정황이라는 것 또한 번역이론가 뿐만 아니라 번역가로서 돌레가 지니고 있는 일면을 가늠하고자 시도한 몇 몇 설명만으로는 충

13) "랑그는 오로지 디스쿠르를 목적으로만 창조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랑그에서 디스쿠르를 구분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며, 혹은 어떤 순간에 랑그가 디스쿠르처럼 행위로 진입하게 되는 걸까?", F. de Saussure, 2002 277.

분히 포착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발레리 위스가 돌레가 라틴 육각시를 프랑스어 산문으로 번역한 근본적인 이유를 당시 권력의 압력과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한 프랑스 독자들의 취향에서 찾을 때(1986 56), 혹은 로마시대의 웅변가들과의 경쟁심의 일환으로 파악할 때(쇼마라 1993 92), 수공이 가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어떤 결핍이 남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번역에서 지향해야 할 것으로 돌레가 지적한 “웅변적 숫자”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수용과 해석은 단일한 곳을 지향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수사학자들의 관점과 메쇼닉이 천착하는 시학의 관점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돌레가 번역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설파했던 이 개념을 정형율에서 벗어난, 즉 “그리스어에서 ‘리듬’과 등가를 이루는 숫자에 대한 고찰”<sup>14)</sup>로 여기면서 “각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리듬이나 숫자”(미어호프, 같은 책 5)로 해석한 경우, 우리는 아래 벤베니스트의 지적을 즉각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 그대로 “호르기의 특수한 방식”을 의미하는  $\rho\upsilon\theta\mu\omicron\varsigma$ 가 고정되지도, 본질적인 필연성도 없는, 항상 그 주제가 변화하게 마련인 “정렬”에서 기인한 “배치들”이나 “배열”을 기술하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sup>15)</sup>

리듬의 어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벤베니스트는 리듬을 뜻하는  $\rho\upsilon\theta\mu\omicron\varsigma$ (루트모스 ; *rhuthmos*)가 어원적으로 동적인 운동 개념을 전제한 ‘흐르는 행위’의 특별한 방식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규칙적·형식적·수동적·정적인 개념이 아니었는데, 플라톤에 이르러 강약의 반복에 기초한 단순한 ‘템포’처럼 해석된 이후, 서양에 이러한 해석이 고스란히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즉,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에 ‘흐름’이라 여겨진 개념이 변형되어 ‘강약의 규칙적인

14) Kees Meerhoff. 1986 19. 16세기의 숫자와 리듬 개념의 전개 및 수용에 관해서 세비에, 뒤 벨레, 돌레, 뱌보, 플르티에 등을 망라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와의 연관을 통해 조사한 이 저서는 당시의 숫자 개념은 ‘각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 용어에 해당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15) E. Benveniste, 1966 333.

반복(플라톤)으로 널리 정착되면서 리듬 개념이 자율적인 ‘운동’이라는 본래의 뜻 보다는, 오히려 운동의 한 가지 ‘형식’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고정되었으며, 이러한 형식적 차원에서의 리듬 개념이 서양에서 수세기를 거치는 수용 과정을 통해 시작법이나 수사학적 박자 개념과 결부되었으며, 리듬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벤베니스트가 감행한 리듬의 어원 연구가 지니는 가치는 한마디로 리듬이란 ‘역사적인 개념’이지 ‘본질’(essence)을 전제하거나 조화, 하모니, 균형, 규칙성, 박자, 템포, 정형을 등에 결부된 개념이 아니었으며, 관점에 따라 변질되고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어호프가 “옹변적 숫자” 개념을 그리스어의 리듬 개념과 연관 지으면서 벤베니스트와의 연장선상에서 ‘각운’을 벗어나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구두점과 프랑스어의 강세”(1986 69)에 관련된 것으로 정의할 때 일면 수궁을 하게 되면서도—아무리 라틴시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시는 음절의 장단(長短)과 상관없이 음절적이고(한 음절 각각의 길이가 동일한) 통사적 차원에서 강세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 둘레에게는 “균형의 효과들과 음성적인 조음”(같은 책 75)이었다고 언급하면서, 규칙성을 토대로 한 “수사학적 박자”라는 틀 안에 이 개념을 가두어 버린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리듬은,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는’<sup>16)</sup> 근본적으로 어떤 본질을 상징하는 개념, 숫자나 박자, 조화나 균형, 규칙성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비록 둘레의 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훌륭히 번역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산문만을 언급하고 있다”(미어호프 1986 79)고 하더라도, 이 때 “옹변적 숫자” 개념은 언어행위 전반과 관련된 어떤 ‘시적인 것의 번역에 대한

16) 여기서 수사학이라 함은 수사적 기술의 다섯 부분(*inventio, dispositio, elocutio, memoria, actio*)을 두루 포괄하면서 “언어활동에 의한 행위”(action par le langage)를 의미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쿠르 전반의 운용과 관련이 있던 논거 발견술이나 논거 배열술이 현저히 감퇴하기 시작한, 즉 고전주의시대 이후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 수사학, 혹은 ‘신(新) 수사학’이라 일컬어지는 그룹 뮤(*groupe μ*), 장 코앵(J. Cohen), 토도로프(Todorov), 혹은 유독 표현술에 관련된 “[디스쿠르에서] 두드러지게 공통적인 요소들, 대중적으로 유용하며 통상적으로 순환되는 형상과 기법”(G. Genette, 1991 15.)을 추출하는 데 몰두해 온 20세기 구조주의나 기호학과 결부된 수사학을 지칭한다.

고찰'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 개념은 전통적으로 시에 결부되었던 테크닉으로써의 각운이나 규칙적인 음절수를 바탕으로 한 시작법에서의 운율, 박자의 규칙적인 교체를 토대로 삼는 수사학적 리듬 개념, 혹은 라틴시에서 영향을 받아 장단을 전제하는 운각(韻脚, pied), 이 모두를 벗어나 있는 무엇, 즉 돌레 자신이 번역을 감행하면서 이타성의 경험을 겪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고유한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다시 말해서, 라틴어 육각시 원문 텍스트의 규칙성이나 장단의 조화를 모두 벗어나는 무엇, 음의 길이를 전제하는 장단의 교체나 그것의 규칙성이 아니라, 오히려 르네상스 문학 연구자 손주경이 지적한 것처럼 “리듬에 기초한 조화로운 언술”<sup>18)</sup>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운문을 운문으로’ 옮겨오는 데서 시 번역의 핵심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번역을 통해서 도착어에서 ‘시적인 무엇’을 새로 일구어내는 작업이야말로 돌레 자신이 “리듬에 대한 고찰”이라 부르면서 몰두했던 무엇이라 할 것이며, 이럴 때 비로소 돌레는 이타성을 동일성으로 대치해버리고 마는 번역론자의 반대 측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메쇼닉이 돌레의 다섯 번째 원칙에서 “리듬과 프로조디”를 뜻한다고 지적하면서 “번역시학의 핵심이 여기에 이미 묘사되어 있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뒤 벨레 이전에 돌레의 “웅변적 숫자” 개념에서 바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이지 운문과 시를 동일시하지 말아야만 한다. 운문을 운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가장 빈번히 목격되는 것처럼, 운문들을 어렵잡아 고안하는 것인데, 이런 운문들은 시가 아니며, 더 이상 시도 아니다.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어떤 해결책은 적어도 뒤 벨레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메

17) 비록 돌레의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잘 번역하는 방법」이 라틴 육각시 번역이 출간되기 이전에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도, 실제로 그가 시적인 텍스트들의 번역을 감행한 것은 그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18) 이에 관해서는 에티엔 돌레의 번역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돌레의 태도, 번역보다는 해석에 대한 관점을 피력한 것 등)과 새로운 가치(“구두점의 사용에 관한 성찰”, “각 언어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와 아울러 16세기 번역론 전반을 정초한 학자들의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손주경의 글(2007)을 참조할 것.

쇼닉, 1999 260)

이 경우, 번역가의 임무는 정형시의 규칙성을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도, 이것과 대척점에서 오로지 의미만을 헤아려(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원문을 소위 ‘산문’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의미의 움직임, 즉, 강세(強勢, accent)의 실현을 뜻하는 ‘리듬’과 ‘자음과 모음의 고유한 조직들’을 의미하는 ‘프로조디’의 독특한 결합을 통한 의미의 산출을 세밀히 분석하여 고정된 문법 구조들을 위반하거나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디스쿠르의 특수하고도 독창적인 효과들을 옮겨오는 데 놓이게 될 것이다.

## 2-5. 뒤 벨레와 ‘말하는 행위의 특수한 방식’을 번역하기

### 2-5-1. 번역 불가능성

한편, 뒤 벨레에 관해 메쇼닉이 아래와 같이 지적한 것은 흔히 뒤 벨레가 처음으로 제기해했다고 여겨져 온 ‘번역불가능성’ 개념과, 특히 시 번역을 둘러싸고 ‘운문에서 운문으로의 번역’ 강조해왔던 일련의 주장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뒤 벨레를 번역 불가능성의 관점에서 종종 해석하였는데, 그것은 『에네이드』의 제 4장을 번역한 뒤 벨레의 시도와는 모순되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번역은 동일한 재능을 요구한다. 뒤 벨레가 드러내려 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게 바로 친화력(親和力 *affinité*)의 문제이다. 허나 오늘날이라고 더 잘 이것을 파악할 줄 아는 건 아니다.”(메쇼닉 1999 41-42, 밑줄-인용자)

그간 뒤 벨레가 최초로 주장했노라 여겨졌던 번역불가능성<sup>19)</sup>에 대한 메쇼닉의 위 해석은 뒤 벨레가 시의 속성을 무엇으로 파악했는지를 묻는 작업과도 연관되어 있다. 뒤 벨레가 ‘번역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은유나 알레고리, 문

19) 번역 불가능론의 시조처럼 인식되어온 뒤 벨레에 대한 연구는 조재룡, 2007, 2008을 참조할 것.

채(文彩, figure), 에너지” 등, 전통적으로 시에서 집약적으로 녹아있는 ‘표현력’(elocutio)이었다고 한다면, 뒤 벨레가 정작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난해하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서, 뒤 벨레는 번역 불가능한 ‘본질’이나 그 원칙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번역을 감행할 시, 양 텍스트 사이의 “친화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회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쇼닉은 번역불가능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번역사에서 종종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건의 일종으로 환원시킨다.

“따라서 텍스트로서의 번역불가능성은 역사적인 이유들에서 빚어진 문화적인 효과이다. 번역불가능성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지, 형이상학적(의 사소통이 불가능한 것, 표현될 수 없는 것, 신비, 재능)인 것은 아니다.”(메쇼닉 1973 309)

### 2-5-2. 번역: ‘행위로서의 언어’를 낳은 모태

한편 뒤 벨레의 사유에서 이미 엿보인다고 메쇼닉이 지적한 바 있는 텍스트 사이의 “친화력의 문제”는 뒤 벨레 이후부터 어림잡아 오늘날까지 이분법적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번역방법론에 일침을 가하기에 충분한 개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개념이 번역사나 번역이론의 차원에서 공히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되는 이유는 폭넓은 적용 가능성과 그 효용성만큼이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이 개념 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학 차원에서 번역에 대한 사유를 노정환 돌레와는 대조적으로 뒤 벨레가 오로지 “프랑스어의 성장”을 제 과업으로 삼았던 문법 연구가였다고 하더라도, 메쇼닉이 지적한 것처럼, 뒤 벨레가 “시인일 경우, 번역의 주된 문학적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했다”(1999 41)고 파악해야하는 근본적인 까닭은 바로 그가 결과적으로는 번역에서 친화력의 개념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프랑스어를 옹호하는 과정의 대척점에 서서 폄하된 어떤 대상이나 불가능한 무엇으로 번역을 고착시킨 뒤 벨레의 초상이 아니라, 그가 번역을 통해 만들어낸 프랑스어의 변화, 그리고 뒤 벨레를 통해 번역사에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양 텍스트 사이의 친화력의 문제가 향후

어떻게 번역사에 정착되고 확산되었는가 하는 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뒤 벨레가 번역을 통해 프랑스어에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가 남긴 “에네르게이아(energeia)”나 “딕션(diction)”(뒤 벨레, 1967)과 같은 개념을 통해 당시 시나 시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번역의 문제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조망해볼 가능성을 열어준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지적은 뒤 벨레에 있어서 번역의 가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언어적 자기화를 선호하는 것은 적어도 뒤 벨레에게는 그 자신이 번역을 이해하고 있던 “충실한” 수용에서의 번역하기’가 아니라 [...], 출발어를 모방하면서도 도착어에 ‘말하는 방식’을 새롭게 부과하는 일련의 과정에 놓인, 일종의 도착어 전달 능력을 연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예를 들어, 동사 원형의 실사화(‘변화하기’, ‘살기’)나 형용사의 실사화(‘호르는 것’, ‘두터움’), 조동사적 가치를 지닌 동사의 사용(‘날아서 거기에 가기’), 부사적 가치로 사용되는 형용사의 사용(‘그는 가볍게 난다’[il vole léger]) 등의 경우처럼, 뒤 벨레에게는 주로 이행(translation)을 운용하게끔 인도한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예를 통해 뒤 벨레가 파악한 언어는 ‘행위로서의 언어’, 즉 ‘디스쿠르로서의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배껴온 것은—다시 한 번 그의 표현을 인용하자면—‘말하는 행위의 한 방식’의 다름 아닌 것이다.”(데송[Dessons] 1995 134)

제라르 데송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뒤 벨레가 대다수의 르네상스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라틴어와 그리스어 텍스트들을 모방(모사에 가까운)을 통해 가장 원문과 가깝게 옮겨와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행한 번역에서 남겨진 것은 기존의 문법 틀을 벗어나는(확장시키는) 단어들의 고안이나 통사구조의 변환으로 대변되는 도착어의 개척, 즉 메쇼닉이 언급한 “랑그의 구조까지도 변화시키는” ‘탈중심화’(decentration)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인 것이다. 한마디로 뒤 벨레에 있어서 번역은 프랑스어를 변화시키는, 즉 프랑스어(랑그)에 ‘행위’를 부여하게 된, 즉 디스쿠르 차원에서 랑그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의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번역을 통해 뒤 벨레가 라틴어와 프랑스어 사이에 친화력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자신이 옹호하고자 했던 프랑스어를 보다 풍부하게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여기에 있다.

### 3. 친화력과 운문번역: 남겨진 과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제는 운문 번역의 문제를 친화력 개념과 결부지어 사고할 어떤 단초를 뒤 벨레에서 목격했다고 메쇼닉이 암시적으로 남긴 지적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지적은 뒤 벨레 이후 포스트 르네상스 시대에 불어겨 나온 운문역과 산문역의 대립이나, 이후 “불충한 미녀 번역”이 상황을 이루게 될 17-18세기에 프랑스의 번역가들이 주로 천착했던 문제들, 나아가 술라이어마허의 번역 에세이와 훔볼트의 『아가멤돈』의 번역과 서문이 출간되었던 19세기 초 엽이나 샤토브리앙의 밀턴의 『실낙원』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 연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던 낭만주의 시대를 모두 포괄하여, 매 시기 번역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들의 쟁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지표를 형성할 것이다. 그간 번역의 방식에 대한 논의는 친화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직역과 의역 사이의 ‘선택’의 문제, 혹은 장르별로 분화되어 각기 상이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번역사의 문을 비집고 충실성이나 운문과 산문의 이분법이라는 두 가지 명령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같은 이분법적 패러다임인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운문으로 쓰여진 텍스트의 번역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운문은 오로지 운문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렇게 번역해만 한다”(이트킨트[Etkind], 1982 276)고 주장하는 번역학자는 시를 “의미와 소리, 내용과 형태의 결합”(같은 책 11)이라고 말한다. 혹은 이러한 주장의 대척점에 운문을 산문으로 옮겨온 번역이 자리하며, 즉각적으로 이러한 번역은 ‘운문을 운문으로’ 번역한 자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트킨트의 논리는 얼핏 보아 의미와 형태 사이의 이분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번역에서 의미와 형태의 결합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며 또 어떤 가치를 형성해내는지 디스쿠르의 전반의 운용 방식을 헤아려 번역에 반영하기보다는, 오로지 원 텍스트의 외형적인 요소들이 지닌 미적 효과들, 예컨대 각운의 배치나 음절의 규칙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운문에서 운문으로의 번역’이라고 여길 뿐이다.

운문 번역 문제가 번역을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제시되어 이분법적 패러다

임의 모순과 허구를 첨예하게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운문으로 구성된 원문을 도착어 문화의 운문으로 대치하는 행위가 자국 독자의 문화적 소양을 보장해줄 것이라며 번역가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을 번역가에게 제공해 줄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는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언어-문화’가 다른 하나의 ‘언어-문화’를 지워가는 과정의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가 ‘시’인 까닭은 그것이 단지 알렉산드르 격이나 소네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한 편의 시가 ‘시로서 제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게 반드시 형태의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번역이론이 ‘문학 텍스트의 특수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 ‘특수한 지점들을 어떻게 옮겨올 것인가’라는 궁리에 호응하는 제안들을 하나씩 창조하면서 완성된다고 한다면, 운문을 반드시 운문으로 옮겨와야만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일련의 연구자들에게 원문의 문학 텍스트로서의 가치란 도착어 문화에 익숙한 시 형식 속으로 수렴될 뿐, 번역을 통해 그 이상을 생성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번역은 시를 옮겨왔다고 생각함에도, 실상은 아무 것도 옮겨오지 않는다. 단지 역사적·전통적으로 도착어 문화가 배양해왔으며, 도착어 문화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운문의 한 형식으로 원문을 재구성 할 뿐이다.

만약 번역가들이 운문을 운문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번역을 행하기보다, 두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력’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비록 그 결과물이 운문을 벗어날지언정, 도착어 문화에 고유한 무엇, 즉 동일성(identité)을 번역에서 확인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번역은 알렉산드르 격으로 이루어진 보들레르의 시를 시조의 형식 속에 가두어 번역하는 행위와 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다 다음은 김안서가 베를렌의 시를 번역한 한 예이다.

Je suis venu, calme orphelin(8)      나는왔노라, 順柔한孤兒인 나는(13)  
 Riche de mes seuls yeux tranquilles(8)      가진것이란 柔肅호눈뿐이로다.(13)  
 Vers les hommes des grandes villes(8)      큰都市의사람만흔틈에 석겨도(13)  
 Ils ne m'ont pas trouvé malin(8)      사람들은 나를惡타아니하여라(13)

「Gaspard hauser Singa」-일부 Gaspard hauser 「Singa」-일부<sup>20)</sup>

위의 김안서 번역에 관해 세 가지 사실만 언급해보자. 첫 번째, 번역은 번역가의 작품에 대한 태도와 언어이론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기 마련인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이다. 김안서는 원문의 특수성이 ‘규칙성’에 놓여있다고 보았으며, 그럼에도 이 규칙성을 도착어 문화에서 등가를 이룬다고 말할 법한 시조나 민요조의 음수율(7·5조)을 차용하여 옮겨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종결어미에 대해 몇 부린 태도를 보인 것(~노라, ~여라)이나 “나는”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반복해서 번역을 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점은 나름대로 김안서가 원문이 지니고 있는 ‘시로서의 가치’를 번역에서 반영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세 번째, 만약 이 번역을 ‘운문을 통한 운문’ 번역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태만을 고집하여 음절수의 규칙성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도, 도착어 문화에 존재하는 운문 형식 중 하나를 취사선택해서 번역했기 때문은 더 더욱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운문으로 이루어진 원문의 시적인 것, 즉 시로서의 가치가 번역에서 반영되는—반드시 김안서의 번역이 그것을 반영했다는 게 아니라—것은 ‘운문을 도착어의 운문 형식’으로 번역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 텍스트의 친화력을 고려하여 번역을 감행할 때 가늠해 볼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메쇼닉의 아래 지적에는 번역해야 할 것이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가 만들어낸 특수한 무엇, 우리가 흔히 ‘문학성’이라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심지어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구분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대립과도 결속된다. 도착어중심주의자는 하나의 사유가 언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리고 번역해야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유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천과 목표 사이의 대립은 더 이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오로지 결과만이 고려될 뿐이다. [...] 어떤 언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원천이 존재하는 데, 그건 바로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무엇일 뿐이다.”(메쇼닉, 1999 23)

20) 김안서, 1987 88.

시가 되었건 소설이 되었건, 친화력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주된 방식(의역이나 직역) 중 하나 속에 번역 대상 텍스트가 놓이게 될 때, 온갖 종류의 이분법이 번역사를 배회하게 된다. 역사 속에서 이런 해프닝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포스트 르네상스 시대에 안 페브르 다시에(Anne Faiver d'Acier)와 라모트 우다르(La Motte Houdar)가 각기 산문역과 운문역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신구논쟁’이란 이름으로 촉발되었던 번역사의 한 사건이다. 안 페브르 다시에게 “산문은 운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으며, 운문은 산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을 때, 산문역과 운문역 사이의 취사선택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번역 연구 전반에 만들어진다. 아니 오히려 번역으로 촉발될 문제의식의 근원에는 산문 개념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의구와 비판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sup>21)</sup>

산문이나 운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결정에다가 번역의 방법론 제반을 수렴하는 태도가 비판받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산문이 “부정성”(négativité, ‘운문이 아닌 모든 것’ 따위)에 의거해 정의되어 왔을 뿐, 그것을 규정할 어떤 잣대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운문역과 산문역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의 뒤에 자리한 인식의 공백지점도 바로 이것이다. 더구나 ‘산문과의 대립 속에서 운문을 인식한 관점’은 운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외적 조건들’(정형율, 각운, 특수한 이미지와 어휘 등)을 운문의 특성이라고 여겨야만 성립하는 관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는 운문 속에 존재하는 이 형식적인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이 경우, 운문의 성립조건으로 여겨진 형식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운문 속에 존재하고 있을 또 다른 무엇, 즉 오히려 ‘운문의 산문성’(la prosaïté du vers)이라 할 무엇이 존재한다는 가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아니, 오히려 운문에서 형식적 특성을 벗어

21) 산문이 전통적·수사학적으로 ‘부정성’에 의거해서 정의되어왔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 산문의 정의는 실체가 없는 정의, 다시 말해서, ‘비교적인’ 가치를 지니거나(~에 비해서, ~와 반대로), 혹은 운문과 상반된 무엇일 것이라는 설정을 통해 성립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산문은 부정성으로 정의된다. 산문이란 운문이 아닌 모든 것이다.”, G. Lanson, 1968 9. 산문 개념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문제점은 조재룡, 2005를 참조할 것.

나 존재하는 진정한 특수성이란 바로 이러한 운문의 산문성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운문에서 연구 대상을 형식적(특히, 정형율) 특성에서 벗어나 디스쿠르의 범주로 넓힐 때, 운문이 지니고 있는 이 같은 측면이야말로 바로 운문을 한편의 시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핵심은 아닐까? 운문 번역에서 고찰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며, 한편 번역의 방식을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장르별 번역론의 차이를 주장할 때 충실성의 문제가 유독 불거져 나오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분법에 기초한 번역 방식에서 벗어나 번역에서 친화력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까닭은 운문에서 우리가 번역해야 할 것은 형식과 정형율, 즉 운문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역사적·이론적·수사학적 관점에서 여겨져 왔던 언어의 ‘액세서리’들과 ‘규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번역사에서 논쟁의 지점처럼 부각되었던 지점들을 번역의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이트킨트를 위시로 한 일련의 번역연구가들의 관점과 해석 방식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번역사에서 모시를 벗어나 ‘직역’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유하게끔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는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의 번역에 관한 사유나 후타르도가 극찬을 한 바 있는(1990 18) 르콩트 드 릴(Leconte de Lisle)의 번역 시도 역시 친화력을 고려해 번역을 사유한 독창적인 경우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산문’ 문학의 활성화에 공헌한 자크 아미요(J. Amyot)의 번역에 대해 의역을 감행했다고 폄하하기 이전에 친화력을 중심으로 다시 접근해 볼 때, 또는 프랑스어의 보편화의 기틀을 세우며 프랑스 문학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불충한 미녀 번역’ 역시 당시의 번역가들이 두 ‘언어-문화’ 사이의 친화력의 문제를 어떻게 노정하면서 번역에서 임했지 여부를 보다 상세히 들여다 볼 때, 번역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 이 흐름을 주도했던 번역가의 윤리가 울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번역을 둘러싸고 빚어진 대다수의 이분법이 역사적으로 고착된 원인과 그 인식론적 기저에는 바로 문학과 시, 번역 방식에 대한 편협한 이해, 혹은 오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성서 번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리듬 개념을 중심으로 모험을 감행한 바 있는 번역이론의 측면에서나, 메쇼닉의 제안은 소위 ‘의역’과 ‘직역’이라는 이분법을 훌쩍 뛰어 넘는 인식의 과감한 전환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메쇼닉이 번역의 단위로 설정한 것은 단어나 개별 기호나 랑그가 아니라 바로 ‘디스쿠르’이며, 디스쿠르를 번역의 유일한 단위로 삼은 까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번역에서 사실상 모든 기호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번역의 관건은 ‘의미’를 추출하여 옮겨오는 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쿠르라는 체계 속에서 뒤엉켜 있는 기호들의 관계와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기호의 ‘가치’를 포착하는 작업에 놓이게 된다.

메쇼닉이 번역을 ‘관계에서 관계’로의 이전으로 파악했다면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번역에 있어서 메쇼닉이 주시하는 것은, 특수성에서 특수성으로의 이전 과정이며, 시 번역에 있어서 원 텍스트의 ‘시로서의 가치’를 포착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도착어를 재구성한 번역을 감행했는가의 여부이며, 이러한 사유나 실천이 전개된 양태를 번역사를 헤집으며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동서양의 번역사 전반에서 흥미로운 연구 지점도 바로 여기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일체의 이분법이 지니는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메쇼닉이 번역사에서 친화력의 문제를 언급했을 때, 또 이로부터 직역과 의역의 이분법을 부정하는 몸짓을 목격하며 번역의 시학을 개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메쇼닉의 이러한 제안은 문학 텍스트의 특수성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학 번역이론의 두 가지 큰 흐름을 구성해온 ‘출발어 문화 중심번역’과 ‘도착어 문화 중심번역’이라는 이분법을 위시로 하여 번역담론 주위에 산재해있는 일련의 이분법들의 ‘무용성’을 과감히 드러낸다. 메쇼닉이 제안한 번역 실천과 번역 이론에서 핵심은 번역이 단순히 랑그와 랑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법적 등가성의 전환이 아니라, 디스쿠르와 디스쿠르 사이에서 행해지는 주체성의 이행에서 출발하여 번역 전반의 성찰을 전개하는 행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쇼닉이 번역사를 횡단하며 포착해 낸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유를 전개한 지점들이며, 돌레나 뒤 벨레에게서 메쇼닉이 목도한 것도, 또한 이들이 처한 역사

적 상황을 헤아려 이들의 사유에서 “귀에 의존하거나”(둘레), “청각의 유사성”(뒤 벨레)에 충실한 번역을 권고한 사실을 굳이 끄집어 낸 이유도 메쇼닉이 자신의 시학을 바탕으로 번역사를 다시 구축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번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역사라는 과거의 공간 속에서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고 있는 번역 연구자들은 번역을 ‘문학을 문학이게 해주는 것’, ‘시를 시이게 해주는 것’과 맞물려 사유하였지, 결코 번역을 기술의 일환으로 여기고 접근하지 않았다. 번역과 마주한 그들의 직관은 항상 문학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번역에 관한 글들은 대부분 문학의 본질을 캐묻는 일환이었으며, 문학이 위치하고 있는 역사성을 가늠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이러한 지점들을 정확히 선별하기 위해 메쇼닉이 번역을 문학연구의 일환으로 여기고 역사를 횡단하고자 하는 까닭도, 베르만이나 스타이너가 번역사에 천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 문헌

- Cicéron. 1921. *Du meilleur genre d'orateurs*(texte établi et traduit par Henri Bornecque). Les Belles-Lettres.
- Ballard, Michel. 2007. *De Cicéron à Benjamin, Tradicteurs, traductions, réflexions*, Septentrion.
- Benveniste, Emil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 Gallimard.
- Berman, Antoine.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Seuil.
- \_\_\_\_\_.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Gerder Cothe Schlegel Novalis Humboldt Scheiermacher Holderlin*. Gallimard.
- Chomarat, Jacques. 1993. 「Dolet traducteur des Lettres familières de Cicéron」 in *Etudes sur Etienne Dolet, Travaux d'Humanisme et Renaissance n°*

- CCLXX, Droz.
- Dessons, Gérard. 1995. 「La traduction selon Du Bellay」 in *Introduction à la Poétique(Approche des théories de la littérature)*. Dunod.
- Du Bellay, Joachim, 1967.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in *Les Regrets et les Antiquités de Rome*. Gallimard.
- Etkind, Efim, 1982. *Un art en crise essai de poétique de la traduction poétique*. L'Age d'Homme.
- Genette, Gerard, 1991. *Fictions et diction*. Seuil.
- Utter, Alvaro, 1990. *La notion de fidélité en traduction*. Didier Erudition.
- Ladmiral, Jean-René. 1994. 「Préface à la seconde édition」 in *Traduire: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 Gallimard.
- Lanson, Gustave. 1968. *L'Art de la prose*, Nizet.
- Meerhoff, Kees. 1986. *Rhétorique et Poétique au XVIe Siècle en France. Du Belay, Ramus et les autres*. Leiden : E. J. Brill.
- Meschonnic, Henri. 1973. *Pour la poétique II, Epistémologie d'écriture, Poétique de la traduction*. Gallimard.
- \_\_\_\_\_. 1978. *Pour la poétique V, Poésie sans réponse*. Gallimard.
- \_\_\_\_\_. 1983, *Critique du rythme, Anthropologie historique du langage*, Verdier.
- \_\_\_\_\_. 1999. *Poétique du traduire*. Verdier.
- \_\_\_\_\_. 2008. *Ethique et politique du traduire*. Verdier.
- Mounin, George, 1994. *Les Belles Infidèles*. Presse universitaires de Lille.
- Ricoeur, Paul. 2004. *Sur la traduction*. Bayard.
- Saint Jerome, 1953. *Lettres, t. III*, texte établi et traduit par Jérôme Labourt. Les Belle Lettres.
- Saussure, Ferdinand de. 2002. *Ecrits de linguistique générale*(Texte établi et édité par Simon Bouquet et Rudolf Engler). Gallimard.
- Steiner, Georges. 1978. 「Chapitre Quatre : Les ambitions de la théorie 1」 in *Après Babel, Une poétique du dire et de la traduction*(Traduit de

- l'anglais par Lucienne Lotringer). Albin Michel.
- Van Hoof, Henri. 1995. *Histoire de la traduction en Occident*. Didier.
- Worth, Valerie. 1986. 「Etienne Dolet, Le choix des textes à traduire」 in *Etienne Dolet(1509-1546) Cahiers V. L. Saulnier, 3, Collection de l'Ecole Normale Supérieure de Jeunes Filles, n° 31*.
- 김안서. 1920. 『廢墟』, 1, 7, 25 in 박강수, 1987, 『岸曙金億全集 : -1 西歐詩譯集』, 한국문화사.
- 손주경. 2007. 「16세기 프랑스의 “번역의 지평”」. 불어불문학연구.
- 조재룡, 2005. 「산문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들」. 불어불문학연구.
- \_\_\_\_\_. 2007. 『앙리 메쇼닉과 현대 비평 : 시학·번역·주체』. 도서출판 길.
- \_\_\_\_\_. 2008. 「번역을 통한 시학의 세계로의 초대 : 앙리 메쇼닉의 경우」. 『시와 시학』. 봄 호(통권 제 69호)

[Abstract]

**A point of view on the history of the translation:  
the case of Henri Meschonnic**

Cho, Jae-Ryong  
(Korea University)

Since the attempts in *Pour la Poétique II*, H. Meschonnic has carried out the basic reflection on the stakes of translation in the creative way. Unlike the previous methods of interpretation which are simple, thus considered as a copy, an imitation and a secondary text, his perspective on translation has brought the theories of languages into play. That is why the thoughts of Meschonnic on translation have revealed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ranslation.

Meschonnic has used definite, specific and original interpretation on translation stretched from the era of Renaissance, the middle age, until today. Therefore Meschonnic's contribution has been started in XVIe century. The theories of trans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practice were very well-known during that time thanks to the work of Chomarat, Worth, Meerhof, and several studies related to the history (or historys) of translation.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hose theories of translation could not be going without the undeniable contribution of Etienne Dolet as well as of Du Bellay. However, the reflection on translation of the French Renaissance did not make it possible to release coherent and homogeneous overall concept. That was rather than gigantic mass of translations of old texts produced during this period. The writer-translators such as Dolet and Du Bellay inter alia, saw the translation as effective means to elevate the state of French as a literary language on the same level as Latin and Greek. As Meschonnic said, however,

their significances are far beyond this level.

They are conscious of proposing some concepts called “le nombre oratoire”(the oratorical number) (Dolet) which implies the methods of translation by the rhythm and the prosody in the dimension of the discourse, not in the langue(within the meaning of Saussure) and the affinity (Du Bellay). While crossing the dichotomic frontier of translation of the direction and the literal translation, they also open the new way of translation toward the discourse. In other words, Meschonnic crosses any history of translation freely. Indeed, the question of the affinity concerning the manner of translating can be offset immediately by the dualistic method of translation. In this direction, we can say the reflection on the literatu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manner of translation are inseparably and massively bound and interrelated. Hence, the role of translation, that of literature in particular, doesn't simply make us turn towards a only formal respect of the origin texts but rather become translators and theorists of translation trying to make flash back to the specificity of writing in the discourse.

▶ Key words: Henri Meschonnic, History of translation, Rhythm, Etienne Dolet, Du Bellay, Affinity

조재룡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rythme@korea.ac.kr

관심분야 : 문학번역이론, 번역비평, 번역과 정치성, 디스쿠르 이론

논문투고일: 2008년 12월 23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7일